

광주 신생기업 '5년 생존율' 28.8% 전국 최저

2018년 기준 3년 연속 최하위...기간산업 부족 탓 한 해 4만개 기업 사라져...전남은 생존율 30.2%

기간산업이 약한 광주 신생기업들의 5년 생존율이 3년 연속 최하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4만개에 달하는 기업이 소멸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광주 28.8%·전남 30.2%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생존율은 31.2%이다.

광주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지난 2016년 25.3%, 2017년 26.6%, 2018년 28.8%로 소폭 오르는 추세지만, 최근 3년 동안 매해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33.3%)였고, 세종(33.0%), 서울(32.5%), 부

산(31.9%), 경기(31.9%), 제주(31.6%), 전북(31.3%), 경북(30.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 생존율은 전국에서 9번째를 차지했다.

광주 산업기반은 5년 생존율이 낮은 금융·보험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업 등이 몰린 탓에 장기 생존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광주는 기업 6년 생존율도 2017년 22.2%와 2018년 23.7%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 광주·전남은 기업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5만7858개의 기업이 새로 생겼다.

지난해 광주 신생기업은 2만6072개로, 전년도보다 448개(1.7%) 기업이 늘었다. 전남 신생기업은 전년도보다 14.4%(4486개) 증가한 3만1786개로, 지난해 처음 신생기업 3만개를 넘겼다.

지역 신생기업들은 8만7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신생기업 종사자 수는 광주 3만7000명·전남 5만명으로, 광주는 전년대와 같고 전남은 1만1000명(28.2%) 증가했다.

신생기업 1곳당 광주는 1명, 전남은 1.6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데는 대부분 신생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 신생기업의 91.5%(2만3857개)가 개인사업자였고, 나머지 2215개 기업만 법인사업자였다. 전남도 신생기업의 91.4%(2만9042개)가 개인사업자로 사정이 마찬가지였다.

광주·전남 신생기업 비중은 전국의 5%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99만6779개 기업이 새로 생겨났는데, 광주는 전체의 2.6% 비중을 차지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았다. 전남 비중은 3.2%였다. 신생기업 절반 이상(54.5%)은 경기

(27만개)·서울(20만개)·인천(7만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2018년 기준 지역에서는 광주 1만9121개·전남 2만777개 등 4만개 가까운 기업이 소멸했다.

광주 기업 소멸률은 11.6%로, 세종(12.5%), 울산(12.5%), 제주(11.9%), 인천(11.6%)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소멸률은 11.1%로 나타났다. 전남 소멸률은 10.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기업'은 광주 281개로, 전년대보다 10개 줄었다. 전남은 59개 늘어난 431개였다.

고성장기업은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연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고성장기업의 비율은 광주는 5.9%에서 5.5%로 0.4%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5.9%에서 6.6%로 0.7%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5.47 (+54.54)
↑ 코스닥	913.81 (+6.97)
↑ 금리(국고채 3년)	0.966 (+0.007)
↓ 환율(USD)	1084.80 (-0.60)

수출바우처사업 기업 모집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15일까지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수출바우처 전체 예산 1064억원의 70% 수준인 7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전국적으로 2150여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내수, 조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K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중소기업, 신산업 및 K-Bio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눠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 교직원, 하루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나와요 사학연금공단, 미청구 불이익 예방 캠페인

"사학 교직원 퇴직급여 받아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10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홍보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학연금 측은 가입 교직원 중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급과 유사)이 생긴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도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넘은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연금 측은 법적용기관에 당일 또는 다음 날 재이용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이 재이용기관의 재직기간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젠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보육시설 김장 봉사
광주은행 송중옥 행장과 신인행원 30여명은 9일 동구 운림동 무등육아원을 방문해 김장을 하고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오늘 공인인증서 폐지...10자리 비번 사라진다

민간인증서·생체 정보 등 이용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내년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활용해오던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이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다.

민간인증서는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

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에서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홈택스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연합뉴스

AI 제어 프로그램 제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기업 2곳과 '인공지능(AI) 기반 비전시스템의 산업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 ㈜리눅스아이티(대표 권경주)와 제조기업 ㈜보명전자(대표 김보미)이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비전시스템과 공동 구매지원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비전 시스템'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인공지능을 통해 불량품을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보명전자 제조 현장에 적용돼 시장 출시 전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수행한다.

이 기술을 제공하는 ㈜리눅스아이티는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한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